

제16회 교사 연주회

釜山教師國樂管絃樂團

7回 定期演奏會

우리가락 **좋을시고**

배워셔 **남주자**



일시_ **2011. 10. 7. (금) 19:00**

장소_ **부산학생교육문화회관 대강당**



주최 · 주관

 부산학생교육문화회관
Busan Educational Cultural Center for Students

후원



모시는 글



제자들에게 우리 전통음악의 멋을 알게 하고자 부산교사국악관현악단을 만들어 연주회를 매년 연 것이 벌써 7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부산교사국악관현악단은 대부분 서양음악을 전공한 교사들이지만 교육현장에서의 국악교육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1993년 3월 민

족음악교육을 위한 교사모임이라는 이름으로 첫걸음을 시작하여 각종 국악연수 및 세미나와 관현악단 연주를 겸하다가 2005년에는 연구단체인 민음과 국악연주단체인 교사국악관현악단의 모습으로 이원화하여 1회 연주회를 연 후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전문 국악연주단체에 비하여 전문성은 너무나 부족함이 많습니다. 하지만 전통음악 교육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기에 자비를 들여 전문가로부터 교습을 받는 등 많은 시간과 공을 들였습니다. 서툰 걸음이지만 선생님들이 매주 한자리에 모여 본 연주회를 열심히 준비하였기에 어느 연주회 못지않게 감동을 선사하리라 믿습니다. 배워서 남 준다라는 신념으로 준비한 음악회이기에 더더욱 관객들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만물이 무르익는 만추의 저녁을 행복감으로 가득 채우는 음악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학교업무를 비롯한 여러 가지 바쁜 일에도 불구하고 매주 화요일 실시되는 연습에 열과 성을 다해 참석해 주신 단원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제대로 구성이 갖춰지지 못한 악단의 규모에 맞춰 편곡과 지휘를 맡아주신 조익래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객원연주자 겸 파트별 지도를 해주신 가야금 박은정, 해금 조위현, 거문고 신아진 선생님, 그리고 여러 가지 지원과 도움을 주신 부산학생교육문화회관 관계자님께도 많은 고마움의 마음을 전하며, 어려운 시간을 내어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지휘노트



화요일 오후6시 어느 때나 마찬가지로 바쁜 걸음으로 교사국악관현악단 연습실에 도착했다. 일찍 온 해금 단원들이 연습에 열중이다. 날씨 때문인지 해금 소리가 오늘 따라 유난히 애절하다. 활사용 표기를 악보에 그리고 서로 악보를 돌려보고 분주하다. 작은 방 안에는 거문고

파트 단원들이 레슨을 받고 있다. <출강> 쉽지 않은 곡인데 밖에서 들으니 제법 들을 만하다. 이렇게 무리한 듯한 레퍼토리를 선택한 덕에 이번 연주회가 끝나고 나면 단원들의 실력이 부족 향상되리라고 기대해 본다. 간단한 먹거리로 저녁을 해결하고 본격적으로 연습에 들어간다. 첫 연습곡이 이경섭 작곡 <방향>이다. “자! 오늘도 방향해 봅시다” 모두 웃음바다가 된다. 지휘자의 권위 버린 지 오래다. 단원들의 대부분이 ‘민족음악교육을 위한 교사모임’이라는 단체로 거의 20년을 함께 해온 음악교육 동지들이기 감정 표현에 조금의 거리낌도 없이 편하다. 다른 합주단체에서는 보기 힘든 모습이다. 음악은 이렇게 편하고 재미있게 해야 한다고 늘 주장해 왔지만 집중력이 떨어지고 어수선했던 연습시간이 자꾸 늘어난다. 연주회가 임박하니 단원들도 걱정이 많이 되나 보다. 화요일 외에 연습 날짜를 또 정해 막바지 음악 다듬기 작업을 하기로 했다.

“선생님들 어릴 적 학교수업에서 우리음악 배워 본 적 있어요?” 뜬금없이 물어 본다. 어릴 적 우리음악을 배우지 않았던 단원들이 우리음악을 가르치고 연주하기 위해 이렇게 모이는 것이 너무나 고맙게 여겨진다. “자! 선생님들 열수! 다시 배워야 할 것도 너무 많고 지치기도 하고 답답할 때도 많지만 우리의 어린이들이 우리음악을 자연스럽게 배워 자연스럽게 연주할 수 있는 그 날까지 모두 절수!”

객원연주 및 지도



해금 조위현

-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국악과 졸업
-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한국음악학과 석사 졸업
- 아랑국악연주단 대표
- 현 부산예술고등학교 강사
- 현 강원도립 국악관현악단 해금주자



가야금 박은정

-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국악과 졸업
-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한국음악학과 석사 졸업
- 아랑국악연주단 단원
- 현 김해시립가야금 연주단원



거문고 신아진

-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국악과 4년 재학 중
- 부산거문고악회 회원

부산교사국악관현악단 연혁

- 1993년 11월 민족음악 세미나 개최(강사 안태호, 오영록, 조선우, 노동은)
- 1994년 8월 음악교사를 위한 장구 및 민요 강습회 개최
- 1994년 11월 민요 논문 발표 부산 경남 지역 민요학술 심포지움
- 1995년 8월 여름방학 (9박10일)남해 상덕 초등학교 풍물패 조직 및 교육
- 1995년 1년간 판소리 강습(강사 원미혜)
- 1996년 단소 자체강습(강사 이갑석)
- 1996년 이후 전 회원의 국악기 1개씩 전문 연주기능 갖추기
- 1996년 11월 작은 음악회 개최 (가람 아트홀)
- 2001년 11월 부산광역시 교육연구원 국악교육분과 연주회 공연
- 2001년 12월 부산교사전통문화연구회 창단 공연
- 2002년 8월 경성대학교 주관 꾸러기 음악회 공연
- 2002년 11월 부산광역시 교육연구원 국악교육분과 연주회 공연
- 2003년 5월 제1회 민음과 함께하는 우리 음악 느끼기 공연
- 2003년 9월 학교음악교육정상화를 위한 결의대회를 겸한 음악회
- 2003년 12월 부산광역시 교육연구원 국악교육분과 연주회 공연
- 1998년 11월 11일 부산교육대학 강당 국악분과발표
- 1999년 1월 부산광역시 교사연주회 출연 (부산시민회관 대강당)
- 1999년 7월 토요상설무대(부산문화회관 중강당) 연주

- 1999년 11월 MBC 목요 음악감상회 겸 국악분과회 발표
- 2000년 12월 국악분과회 발표 학생교육문화회관
- 2001년 12월 학생교육문화회관 국악분과발표
- 2001년 12월 부산전통문화회 공연 금정문화회관
- 2002년 5월 부산전통문화회 토요상설 무대공연
- 2002년 5월 산중문화대제전 민음 예술 현악3중주연주
- 2002년 8월 경성대학교 문화부 주최 꾸러기음악회 초청연주회
- 2003년 12월 부산교사전통문화연구회 제2회 연주회 공연
- 2004년 12월 교사국악관현악단으로 민음과 이원화
- 2005년 8월 여름방학 교과서음악회
- 2005년 12월 제10회교사연주회 (제1회 부산교사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 2006년 11월 제11회교사연주회 (제2회 부산교사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 2007년 11월 제12회교사연주회 (제3회 부산교사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 2007년 12월 학교 음악정상화를 위한 음악회
- 2008년 8월 교과서 음악회
- 2008년 10월 제13회 교사연주회 (제4회 부산교사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 2009년 10월 제14회 교사연주회 (제5회 부산교사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 2010년 10월 제15회 교사연주회 (제6회 부산교사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연주곡목

1. 관현악곡 <방향>

작곡_이경섭

피리소리는 바람과도 같다. 저절로 흐르는 바람소리를 표현한 것이다. 피리소리의 본질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 바람처럼 아무 거리낌 없이 흥청대는, 그러나 저절로 삶을 그대로 드러내는, 자유분방함마저 있는 그런 느낌으로 이 곡을 만들었다. 장단과 리듬, 재즈는 물론 트롯, 국악에 이르기까지 우리시대와 놀 수 있는 소리를 통해 바람의 느낌처럼 자유를 느끼고 싶었다. (이경섭 글) 이곡은 2001년 발매된 이경섭 작곡앨범 “방향”에 수록된 곡으로 서양의 재즈어법과 함께 국악기와 국악음률이 적절히 어우러진 작품이다.

2. 거문고 제주 <출강>

작곡_김용실

거문고_이경자, 박덕주, 김정숙, 신아진

거문고는 흔히 “백악지장(百樂之丈)이라 하여 선비들의 높은 기상을 나타내는 현묘한 악기”로 숭상되어 왔는데, 거의 모든 손가락을 사용하는 가야금과 다르게 대나무로 만든 가느다란 ‘술대’ 하나로 줄을 쳐서 연주를 하기 때문에 가락에 빠른 변화를 주기가 쉽지 않다. 또한 줄도 여섯 개로 되어 있어 음역에도 제약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1964년에 작곡된 거문고 연주곡 출강은 우리가 자주 듣던 거문고 음악과는 사뭇 그 정취가 다른 곡으로 북측의 거문고 음악 발전에 크게 공헌한 김용실의 대표적인 작품이다. 그는 황해도 제철소에서 노동자들과 함께 일하면서 이곡을 작곡했는데, 흥남제련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힘찬 모습을 그린 곡으로, 사회주의 리얼리즘에 충실한 곡이라 할 수 있다. 대개의 북한 음악이 그러하듯 힘차고 활기가 넘치는 곡이다.



3. 해금제주 <적념>

작곡_김영재

해금_이주영, 이미자, 정영희

클라리넷_조익래 기타_류성식 피아노_문해정

적념은 김영재 선생님이 1989년 작곡한 것이며 적념이란 단어의 뜻은 불교 용어로 온갖 망상과 번뇌를 벗어나 몸과 마음이 흔들림 없이 매우 고요한 상태의 상각을 뜻한다. 이 곡은 90년대를 대표하는 해금 독주곡으로 해금 창작 음악의 포문을 열어 준 음악이기도 하다.

2개의 현에서 만들어지는 오묘한 소리의 조화가 가슴을 파고드는 매력의 악기 해금을 위해 창작된 이곡은 악곡명이 암시하듯이 쓸쓸하고 외로움을 표현한 주제 선율을 바탕으로 삼고 있다.

4. 퓨전연주 <기차는 8시에 떠나가네>

작곡_미키스 테오도라키스

타악_이경임, 문해정, 이수원

해금_안경희, 송화숙, 이주영, 이미자, 정영희

오카리나_최지환 색소폰_류성식 피아노_김혜란

기타_이갑석, 이경자, 이본우, 박덕주, 이순영, 양복귀, 이자화, 김정숙

이 음악의 작곡 배경은 2차 세계대전 당시 그리스에서 프랑스 레지스탕스에 합류하려 떠난 애인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여인의 심정을 노래한 곡으로, 노래에서 카타리나로 떠나 돌아올 줄 모르는 청년 레지스탕스를 기다리는 여심(女心)이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SBS의 드라마 <백야>의 주제가로, 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성악가 조수미가 불러 친숙해진 노래이다.

5. 국악가요 <천년바위, 망부석>

노래_이갑석

천년바위 (장옥조)

동녘 저편에 먼동이 트면 철새처럼 떠나리라 / 세상 어딘가 마음 줄 곳을 짚시되어 찾으리라 / 생은 무엇인가요 삶은 무엇인가요 / 부질없는 욕심으로 살아야만 하나
서산 저편에 해가 기울면 접으리라 날개를 / 내가 숨쉬고 내가 있는 곳 기쁨으로 밝히려라 / 생은 무엇인가요 삶은 무엇인가요 / 부질없는 욕심으로 살아야만 하나
이제는 아무것도 생각을 말자 생각을 하지 말자/ 세월이 오가는 길목에 서서 천년바위 되리라

망부석 (김태곤)

간밤에 울던 제비 날이 밝아 찾아보니 처마 밑엔 빈 둥지만이 / 구구만리 떠나면 길 다시 오마 찾아가나 저 하늘에 가물거리네 / 에헤야 날아라 에헤야 꿈이여 그리운 내 님 계신 곳에 / 푸른 하늘의 구름도 등실등실 떠가네 높고 높은 저 산 너머로 / 내 꿈마저 떠가라 두리둥실 떠가라 오매불망 내 님에게로
깊은 밤 잠못 이뤘 창문 열고 밖을 보니 초생달만 외로이 떴네 / 멀리 떠난 내 님 소식 그 언제나 오실텐가 가슴 조여 기다려 지네 / 에헤야 날아라 에헤야 꿈이여 그리운 내 님 계신 곳에 / 달 아래 구름도 등실등실 떠가네 높고 높은 저 산 너머로 / 내 꿈마저 떠가라 두리둥실 떠가라 오매불망 내 님에게로 / 달 아래 구름도 등실등실 떠가네 높고 높은 저 산 너머로 / 내꿈마저 떠가라 두리둥실 떠가라 오매불망 내 님에게로

6. 민요 부르기 <아리랑, 진도아리랑, 밀양아리랑>

관객과 함께

한국의 3대 전통민요 아리랑은 정선아리랑, 진도아리랑, 밀양아리랑을 말한다. 정선아리랑은 태백산맥 동서를 따라 설정된 메나리토리권의 민요로 민요적 전통성과 지역성이 강하다. 진도아리랑은 호남지역의 육자배기토리권에 속하지만 다른 육자배기토리 민요와 약간 차이가 있다. 전라남도 진도와 호남지역, 충청남도 일대, 경상남도 서부지역, 제주도 등에 분포되어 있다. 밀양아리랑은 영남지역에서 전하지만 영남지역의 정자토리 민요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한편 1926년 나운규의 영화 아리랑의 주제가 신아리랑(현재의 아리랑)을 계기로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졌고 통속민요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이후 아리랑은 대중가요·영화·무용·문학 등의 전 예술분야에 파급되는 현상을 가져왔다.

한국의 3대 아리랑 가운데 진도아리랑과 밀양아리랑 그리고 아리랑으로 널리 알려진 신아리랑, 이렇게 3곡을 준비하였다. 우리나라 사람의 정서를 가장 잘 나타하기에 더욱 정감이 가는, 귀에 익은 친숙한 노래인 아리랑을 국악관현악단의 반주로 관객과 함께 호흡하는 장이다.

7. 관현악곡 <현무주작>

작곡_조익래

청룡 백호와 함께 사방에 배치되어 중앙의 나와 함께 오방의 우주를 형성하는 의미를 지닌 상상의 동물 현무와 주작을 음악으로 풀어내었다. 대결구도로 점점 멀어져가는 우리민족의 남과 북이 너무나 안타까워 함께 민족의 기상을 펼쳐내어 화해와 평화를 기원하는 맘으로 부산교사국악관현악단의 지휘를 담당하고 있는 부산진여교 교사인 조익래가 창작한 곡이다.



부산교사관현악단 연주자 소개

해금



정영희 (구서여중)



이미자 (부산서여고)



송화숙 (영상예술고)



김혜란 (해운대여중)



이주영 (금정초)



안경희 (전] 구서초)

가야금



이순영 (양덕여중)



이자화 (괴정초)

거문고



이경자 (사직여중)



박덕주 (가락초)



김정숙 (금사초)

소금 & 노래



이갑석 (학산여고)

피리



이경임 (연지초)

피리 & 태평소



류성식 (부산해사고)

대금



최지환 (윤산중)



양복귀 (한국테크노과학고)



이본우 (대청초)

타악



문해정 (브니엘여고 후직)



이수원 (용호중)



제16회 교사 연주회

〈부산교사국악관현악단 제7회 정기연주회〉

우리가락 **즐**을시고
배워서 남주자



연주단원 모집

국악교육에 관심 있는 모든 선생님!!

실력과 상관없이 누구나 단원이 될 수 있습니다.

초보자도 상관없습니다. '배워서 남주자' 라는 교사국악관현악단의 취지처럼 서로에게 모자란 점을 서로 나누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다시 나누는 '배움과 나눔'의 장입니다.

전통음악을 사랑하는 선생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단원 자격** : 부산광역시 초·중·고 교사 (초보자 환영)
- **연습 장소** : 연산동 2001-7 김태의 차과 3층 (양정로타리에서 망미동방면으로 이마트 지나서 신리삼거리 100전)
- **문의** : 018-568-6587

부산학생문화회관 홈페이지 <<http://www.becs.kr>> 담당연구사 이정민 051) 6055-132